

The Analysis of 30 Years of Research Trends in th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Cheolhae Ye¹, Taeun Shim^{2*}

¹Kyung Hee University, ²Donggu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apers published over the past 30 years in th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by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The study aim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studies, draw implications for religious educ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and provid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directions.

[Contents] This study employed text mining techniques to analyze research trends in the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Studies. Specifically, it analyzed the frequency of major keywords and N-gram connectivity in papers published over a 30-year period from 1995 to 2024. The papers were divided into early (1995-2004), middle (2005-2014), and late (2015-2024) periods to compare keyword TF-IDF for each period. Additionally, the study compared the relationships between keywords through N-gram analysis for early, middle, and late period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Conclusion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ver 30 years revealed that “religious education” and “Buddhism” were major research topics. Research related to “Confucianism” and “Donghak” decreased over time, while studies on “character education”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creased. Second,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in the early period, various “religion-related educational content,” “home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were important. In the middle period, “diversity in religious education,” “educational approaches,” and university-related research increased. In the late period, “religious education” and “technology convergence,” topic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haracter education,” and “public nature” were prominently addressed.

[Keywords] Korean Society for Religiou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Research trends, Text mining

* **Corresponding author** Taeun Shim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E-mail : shim2593@dongguk.edu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종교교육학연구> 30년 연구 동향 분석

예철해¹, 심태은²

¹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²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종교교육학회의 <종교교육학연구>에 지난 30년 동안 수록된 논문들을 분석하여 연구들의 특징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교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종교교육학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1995년부터 2024년까지 30년간 게재된 논문에서 나타난 주요 키워드의 빈도와 N-gram 연결성을 분석하고, 논문들을 초기(1995 - 2004), 중기(2005 - 2014), 후기(2015 - 2024)로 나누어 각 시기별 키워드 TF-IDF를 비교하였다. 또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N-gram 분석을 통해 키워드 간 관계성을 비교하여 각 시기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30년간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종교교육’과 ‘불교’가 주요 연구 주제였으며, 시대별로 ‘유교’, ‘동학’ 관련 연구는 감소하고, ‘인성교육’,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가 증가하였다. 둘째 시대별 특징에서 초기에는 다양한 ‘종교 관련 교육내용’, ‘가정교육’, ‘인권교육’이 중요하였다. 중기에는 ‘종교교육의 다양성’, ‘교육학적 접근’, ‘대학’ 관련 연구가 증가하였다. 후기에는 ‘종교교육’과 ‘기술융합’,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주제, ‘인성교육’, ‘공공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 연구는 종교교육학 연구의 발전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종교교육의 다양성 확보 및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연구 동향, 텍스트 마이닝

I. 서론

어떤 학문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행하는 것은 동료 연구자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해당 학문의 전문성과 권위를 부여한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된 지식을 공유하고 확산하여 궁극적으로는 해당 학문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한국종교교육학회의 학술지인 <종교교육학연구>의 발행은 한국 종교교육학 연구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Sohn, & Kim, 2005: 62). 또한 한국에서의 종교교육학 연구의 역사는 <종교교육학연구>의 역사라고 할 만큼 <종교교육학연구>에는 다양한 종교교육연구자들의 열정과 의지가 담겨 있다(Park, 2015: 2).

2025년은 한국종교교육학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종교교육학회는 “불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에 관한 광범위한 이론과 실제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6월 17일에 창립되었다. 같은 해 6월 24일 개최된 창립기념 학술총회에서 초대 회장인 박선영 교수가 “현대 교육의 고민과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주제 발표 논문과 더불어 총 6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종교교육학연구> 창간호는 1995년 8월 30일 발행되었다. 이후 2024년 12월까지 총 79권의 학술지가 발행되었으며, 수록된 논문은 총 753편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종교교육학연구>의 연구 동향에 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혜정(2005)은 <종교교육학연구> 발행 10주년에, 종교교육학의 연구동향을 국내외 불교교육학을 중심으로 탐구하였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10개의 주제에 따라 분류하였다(Jung, 2005). 손원영과 김지혜(2005)는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의 <기독교교육정보>와 <종교교육학연구>를 분석하여 한국 종교교육학 연구의 특성을 9개로 정리하였다. 연구의 결과 종교교육학 연구들이 주로 인문학적인 연구방법, 곧 문헌연구방법에 의존한다는 것을 밝혔다(Sohn, & Kim, 2005). 박범석(2015)은 <종교교육학연구> 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불교교육학의 종교교육적 성격을 고찰하여 불교의 교육(education of Buddhist), 불교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Buddhism), 불교적 교육(Buddhistic education)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불교교육학의 종교교육적 과제로는 개념 정립의 문제와 종교 간 비교의 문제를 제시하였다(Park, 2015).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문헌연구에 의존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해석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여 연구 주제를 분류하고, 시대적 변화보다는 특정 종교교육의 학문적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은 시대적 맥락에서 종교교육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데이터 분석 기법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동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텍스트

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30년간의 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키워드 빈도, 연관성, 시기별 변화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특정 종교(불교)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다양한 종교교육 연구의 흐름을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시대적 변화 속에서 연구 주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최근에는 종교교육학 연구 동향 분석에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재용과 최준규(2023)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게재된 ‘가톨릭 학교 교육’ 관련 연구를 조사하여 총 53편의 논문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교육’, ‘가톨릭’, ‘종교’, ‘학교’, ‘대학’ 등이 주요 키워드로 확인되었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종교교육과 중등 및 대학교에 집중되어 있음을 밝혔다(Lee, & Choi, 2023). 박종향, 김은영, 김용태(2024)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불교’를 주제로 한 국내 연구 논문 483편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LDA 기반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불교 사회화와 대중화’, ‘불교 수행과 신앙 전통’, ‘불교학 연구와 방법론’ 등 9개 주요 토픽을 추출하였다(Park, Kim, & Kim, 2024). 길완제 외(2024)는 불교교육학과 기독교교육학의 연구 동향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독교교육학 연구는 불교교육학에 비해 10배 정도 많은 성과물을 보였다. 불교교육학은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되며, 기독교교육학은 실천적인 차원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Gil, Shin, Kim, & Jang, 2024). 이후희, 전보라, 원형준(2024)은 ‘가톨릭’, ‘교육’, ‘가톨릭교육’, ‘신앙교육’ 등의 키워드를 통해 가톨릭교육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가톨릭교회’, ‘교육’, ‘교리교육’, ‘신앙’, ‘그리스도’ 등의 키워드가 주요 연결중심성 키워드로 확인되었다(Lee, Jeon, & Won, 2024).

본 연구는 <종교교육학연구>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연구로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방법론을 통해 종교교육 연구의 발전과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 동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연구 주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종교교육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종교교육이 공교육 및 사회적 요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종교교육학회의 <종교교육학연구>에 지난 30년 동안 게재된 논문을 분석 및 검토하여 종교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5년에서 2024년까지 30년간 <종교교육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에서 나타난 주요 키워드의 빈도와 N-gram 연결성은 무엇인가?

둘째, <종교교육학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초기(1995 - 2004), 중기(2005 - 2014), 후기(2015

- 2024)로 나누어 각 시기별 주요 키워드의 TF-IDF를 비교하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셋째, 초기, 중기, 후기 10년씩 나누어 N-gram 분석을 통해 키워드 간 관계성을 비교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한국종교교육학회의 학술지 <종교교육학연구>에 지난 30년 동안 수록된 논문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2025년 1월 기준 한국 학술지인용색인(KCI) 및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활용하여 ‘한국종교교육학회’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총 3,407건의 국내 학술논문이 검색되었다. 이때 30년간의 역사를 확인하기 위해 KCI 등재지 및 후보지를 모두 포함하였다. 그리고 ‘종교교육학연구’로 발간된 학술지 논문인지 확인한 결과 2,591건이 제외되고 총 816건이 검색되었다.

그리고 검색된 816건을 주저자명, 공동저자, 소속기관,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발행연도, 초록, 주제어(키워드) 정보를 포함하여 Excel 파일로 정리하였다. 데이터 수집 기간은 2025년 1월 한 달 간이었다. 마지막으로 검색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초록 및 본문을 검토하고, 논평 및 논평에 대한 답변 등 연구 논문이 아닌 53편을 제외한 최종 763건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CI 및 RISS에서 수집한 763건의 논문 중 초록 및 주제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명시한 ‘주제어(키워드)’를 사용하였으며, 초록은 연구의 핵심 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요 텍스트 데이터로 활용되었다. 또한 ‘주제어(키워드)’는 연구자가 논문에서 제시한 핵심 개념을 의미하며, 분석 과정에서는 일관된 용어 체계를

<표 1> 연도별 발행 편 수 (총 763편)
<Table 1> Number of Issues Published by Year (Total 763 Issues)

년도	편수	년도	편수	년도	편수	년도	편수	년도	편수
1995	6	2001	27	2007	31	2013	21	2019	31
1996	8	2002	24	2008	31	2014	20	2020	29
1997	15	2003	23	2009	38	2015	21	2021	32
1998	21	2004	19	2010	38	2016	22	2022	48
1999	26	2005	23	2011	31	2017	23	2023	34
2000	19	2006	22	2012	26	2018	20	2024	34

유지하여 데이터 처리의 정확성을 높였다.

2.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종교교육학연구>의 지난 30년 동안 연구의 방향성과 연구 주제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자동화된 분석 기법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연구 동향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Feldman, & Sanger, 2007).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연구 주제의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연구 동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시기별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텍스트 분석은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텍스트톰(Textom)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텍스트톰은 파이썬(Python) 기반의 텍스트 분석 도구로서, 텍스트에서 특정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측정하는 TF(Term Frequency) 분석, 특정 키워드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 그리고 연속된 단어 간의 밀접도를 측정하는 N-gram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데이터에서 연구 주제의 핵심 키워드를 식별하고 연구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TF-IDF 및 N-gram 분석을 적용하였다.

첫째,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을 위해 KCI 및 RISS에서 제공하는 <종교교육학연구>에 게재된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논문은 1995년 8월에 발행된 제1권부터 2024년 12월에 발행된 제79권에 게재된 총 816편 중 연구 논문이 아닌 논평 및 논평에 대한 답변 53편을 제외한 최종 763편이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MeCab-IMC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원시 데이터(raw data)에서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키워드는 제거하였으며, 띄어쓰기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였다. 또한, 한자 또는 영어로 표기된 키워드 중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한글로 번역하여 통일성을 유지하였다. 복합명사의 경우 의미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국가적 재난’을 ‘국가적재난’으로, ‘영적 성장’을 ‘영적성장’으로 수정하는 등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쳤다. 이후 1차 및 2차 데이터 정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분석에 적합한 정제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둘째,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주제의 분류 기준을 기존 종교교육학 연구에서 활용된 체계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종교교육학회의 ‘종교별 교육분과’ 9개에 4개의 연구 주제를 추가해서 총 13개의 연구 주제를 설정하였다. 기존의 9개 종교별 교육분과[불교, 가톨릭, 개신교, 유교, 원불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대순진리회, 동학(천도교), 민속종교(무교, 무속)]에 연구 주제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종교’, ‘종교교육’, ‘교육’, ‘기타’의 4개 주제를 추가하여 키워드 분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종교교육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연구 주제별로 보다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연구 동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기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30년간의 연구 변화를 보다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연구 기간을 초기(1995 - 2004년), 중기(2005 - 2014년), 후기(2015 - 2024년)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시기별 연구 주제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특정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분석하였다. 이후 연구 주제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을 수행하였다. TF 분석을 통해 특정 키워드가 전체 논문에서 등장하는 빈도를 파악하였으며, TF-IDF 분석을 활용하여 특정 키워드가 특정 시기에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평가하였다.

또한 연구 주제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N-gram 분석을 적용하였다. N-gram 분석은 연속된 단어들의 공출현 빈도를 측정함으로써, 연구 주제 간의 관계성과 연구 경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활용된다. 연구 결과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를 생성하여 연구 주제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TF-IDF 및 N-gram 분석을 활용하여 연구 주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30년간 <종교교육학연구> 방향성 분석

1) 30년간 <종교교육학연구> 빈도 분석

30년간 한국종교교육학회에서 발간한 <종교교육학연구>의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763건의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종교교육(220건)에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별 교육분과 13개를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불교(190건) > 종교(83건) > 개신교(79건) > 가톨릭(71건) > 교육(63건) > 원불교(60건) > 유교(42건) > 대순진리회(41건) > 동학(33건)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25건) > 기타(19건) > 민속종교(8건)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위 연구들을 기반으로 불교교육(38건), 교육과정(35건), 영성(32건), 인성교육(25건), 마음공부(21건), 청소년(18건), 교양교육, 명상, 종교성(17건), 종교학(14건), 가정교육, 죽음교육(13건), 인격교육(12건), 종립학교, 죽음, 상생, 마음챙김(11건), 해원, 기독교, 종교다원주의, 정체성, 수행(10건), 불성, 대학, 여성, 소태산, 증산, 지혜, 다종교사회, 영성교육, 종교교사, 가톨릭학교, 공공성, 프로그램, 종교교과서, 욕망, 사랑(9건) 등이 나타났다. 상위 50개 키워드를 확인한 결과 불교교육 및 수행, 교육이념 및 방법, 사회적 맥락에서 종교교육, 현대사회에서 종교 간 대화와 공존을 강조 마지막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다루는 논문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표 2> 30년간 <종교교육학연구> 빈도 분석

<Table 2> Frequency Analysis of *th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Over 30 Years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1	종교교육	220	4.445342	4.445342	26	종립학교	11	0.222267	24.42918
2	불교	190	3.839159	8.284502	27	죽음	11	0.222267	24.65144
3	종교	83	1.677106	9.961608	28	상생	11	0.222267	24.87371
4	개신교	79	1.596282	11.55789	29	마음챙김	11	0.222267	25.09598
5	가톨릭	71	1.434633	12.99252	30	해원	10	0.202061	25.29804
6	교육	63	1.272984	14.26551	31	기독교	10	0.202061	25.5001
7	원불교	60	1.212366	15.47787	32	종교다원주의	10	0.202061	25.70216
8	유교	42	0.848656	16.32653	33	정체성	10	0.202061	25.90422
9	대순진리회	41	0.82845	17.15498	34	수행	10	0.202061	26.10628
10	불교교육	38	0.767832	17.92281	35	불성	9	0.181855	26.28814
11	교육과정	35	0.707214	18.63003	36	대학	9	0.181855	26.46999
12	동학	33	0.666801	19.29683	37	여성	9	0.181855	26.65185
13	영성	32	0.646595	19.94342	38	소태산	9	0.181855	26.8337
14	인성교육	25	0.505153	20.44858	39	증산	9	0.181855	27.01556
15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25	0.505153	20.95373	40	지혜	9	0.181855	27.19741
16	마음공부	21	0.424328	21.37806	41	다종교사회	9	0.181855	27.37927
17	기타	19	0.383916	21.76197	42	영성교육	9	0.181855	27.56112
18	청소년	18	0.36371	22.12568	43	종교교사	9	0.181855	27.74298
19	교양교육	17	0.343504	22.46919	44	가톨릭학교	9	0.181855	27.92483
20	명상	17	0.343504	22.81269	45	공공성	9	0.181855	28.10669
21	종교성	17	0.343504	23.15619	46	프로그램	9	0.181855	28.28854
22	종교학	14	0.282885	23.43908	47	종교교과서	9	0.181855	28.4704
23	가정교육	13	0.262679	23.70176	48	육망	9	0.181855	28.65225
24	죽음교육	13	0.262679	23.96444	49	사랑	9	0.181855	28.83411
25	인격교육	12	0.242473	24.20691	50	민속종교	8	0.161649	28.99576

2) 30년간 <종교교육학연구> N-gram 연결성 분석

30년간 <종교교육학연구>를 기준으로 상위 30개의 주요 키워드 간 연결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패턴이 확인되었다. 연결성이 가장 높은 단어는 ‘불교 + 불교교육’으로 총 26건이 있으며, 이는 연구자들이 불교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음을 반영한다. 특히 불교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특정 종교 내에서 신앙적 실천과 교육적 접근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으며, 교육학적 측면에서 불교의 가르침이 어떻게 현대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불교와 연결된 주요 키워드는 선(禪)(6건), 한국불교(5건), 마음챙김(5건), 명상(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교의 수행 중심 교육 방식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마음챙김과 명상은 현대 교육에서 심리적 안정과 자기 성찰을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 환경에서 심리적 웰빙과 정서적 안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불교의 명상 및 마음챙김 교육이 심리치료, 정서 조절, 인성교육 등의 맥락에서 연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선(禪)과 한국불교의 연결성은 전통적인 수행방식과 교육적 접근이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교육과 연결된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대순진리회(12건), 개신교(12건), 원불교(11건), 교육과정(9건), 가톨릭(7건), 종교학(6건), 생명윤리(5건), 불교(4건), 유교(4건), 종교성(4건), 종교(4건), 다문화사회(4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4건), 초중등학교(3건) 등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종교교육이 다양한 종파와 종교적 배경 속에서 실천되고 있으며, 각 종파의 고유한 철학과 교육방식이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종교교육 + 생명윤리’의 연결이 5건 확인된 것은 현대 사회에서 윤리적 가치 형성과 인간 존재의 의미 탐구가 중요한 교육적 주제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그 외에도 ‘종교학 + 교육과정’(7건), ‘여성 + 사회교육’(6건), ‘청소년 + 심성교육’(6건), ‘대학 + 교양교육’(6건), ‘동학 + 천도교’(5건), ‘원불교 + 마음공부’(4건), ‘가톨릭 + Augustinus’(4건), ‘개신교 + 영성’(4건) 등의 연결성이 나타났다. 이는 종교교육이 특정 대상별 맞춤형 교육 접근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종파별 고유한 신앙적 가치를 기반으로 신앙생활의 실천적 측면과 관련된 연구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 + 사회교육’의 연결은 종교교육이 젠더와 관련된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청소년 + 심성교육’의 연결은 종교교육이 청소년들의 인성 및 도덕적 발달을 위한 중요한 교육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대학 + 교양교육’의 연결은 종교교육이 고등교육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종교적 신념을 함양하는 차원을 넘어 대학 내에서 교양교육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원불교 + 마음공부’의 연결성은 원불교 교육이 단순한 교리 교육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자기 계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30년간 <종교교육학연구>에서 다뤄진 연구 주제들이 단순한 종교적 교리 전달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연결되며 종교교육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심리적 웰빙, 생명윤리, 다문화사회, 교육과정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면서 종교교육이 보다 실천적이고 학제 간 융합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교육이 단순히 교리 전달의 차원을 넘어, 생명윤리 및 죽음교육과 결합하여 학생들

[Figure 1] 30-Year N-gram Connectivity in *th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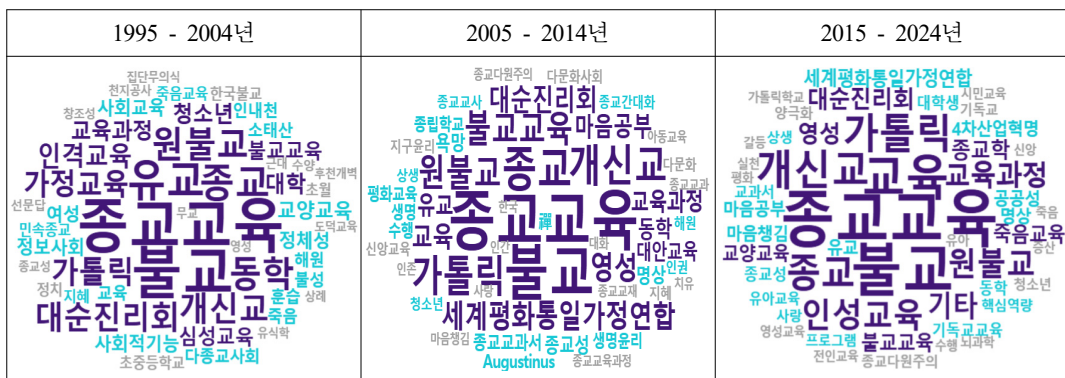
2. <종교교육학연구> 중요도 분석

1) 초기, 중기, 후기 30년간 <종교교육학연구> 중요도 분석

<종교교육학연구>의 논문이 30년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빈도(TF)와 문장의 빈도(IDF)를 체크하고 그에 따른 가중치(TF-IDF)를 산출하였다. 이는 키워드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전체 가중치 중 상위 30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30년간 중요도가 높았던 키워드를 살펴보았을 때 시기별로 동시에 나왔던 키워드를 살펴본 결과 종교교육 및 불교는 상위 1~2위로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 유교와 관련해서는 24건의 연구로 3번째로 중요도가 높았으나, 중기(11건, 13번째) → 후기(7건, 22번째)로 나타났다. 종교 및 원불교, 대순진리회와 관련해서는 꾸준히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학과 관련해서는 초기(17건, 6번째) → 중기(10건, 15번째) → 후기(6건, 24번째)를 살펴보았을 때 관련 연구들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초기(1995 - 2004년)에는 주요 키워드가 종교교육(50건), 불교(49건), 유교(24건), 종교(20건), 동학(17건), 원불교(17건), 개신교(15건), 대순진리회(14건), 가톨릭(13건) 등이 있었으며, 기타 키워드로 가정교육, 인성교육, 교육과정, 청소년, 명상, 심성교육, 사회교육 등의 키워드가 중요도가 높다고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종교교육이 전통적인 종교 가르침과 밀접하게 연결된 연구가 많았으며, 각 종교의 교리 및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유교 및 동학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통적인 가치 교육이 종교교육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음을 반영한다. 가정교육과 인권교육도 강조되었으며, 이는 당시 교육 정책 및 사회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 시대별 <종교교육학연구> TF-IDF 분석

[Figure 2] Era-based TF-IDF Analysis of th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표 4> 시대별 <종교교육학연구> TF-IDF 분석

<Table 4> Era-based TF-IDF Analysis of *th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순위	1995 - 2004년(초기)				2005 - 2014년(중기)				2015 - 2024년(후기)			
	Word	DF	IDF	TF-IDF	Word	DF	IDF	TF-IDF	Word	DF	IDF	TF-IDF
1	종교교육	50	1.32441	66.2209	종교교육	89	1.14971	102.324	종교교육	78	1.32687	107.476
2	불교	49	1.34462	65.8864	불교	70	1.38985	97.2901	불교	70	1.43508	101.891
3	유교	24	2.05838	49.4013	종교	36	2.05483	73.9740	교육	43	1.92238	84.5847
4	종교	20	2.24071	44.8141	개신교	30	2.23715	69.3518	개신교	32	2.21784	73.1888
5	원불교	17	2.40322	40.8548	가톨릭	29	2.27105	65.8607	가톨릭	26	2.42548	70.3390
6	동학	17	2.40322	40.8548	원불교	23	2.50286	57.5657	종교	26	2.42548	65.4880
7	개신교	15	2.52839	37.9258	불교교육	22	2.54731	56.0408	인성교육	19	2.73914	57.5219
8	대순진리회	14	2.59738	36.3633	영성	16	2.86576	48.7180	원불교	19	2.73914	54.7828
9	가톨릭	13	2.67149	34.7294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	17	2.80514	47.6874	교육과정	15	2.97553	47.6084
10	가정교육	12	2.75153	33.0184	대순진리회	15	2.93030	43.9545	기타	16	2.91099	46.5758
11	인격교육	10	2.93385	29.3385	교육	14	2.99929	41.9901	대순진리회	12	3.19867	38.3840
12	교육과정	8	3.157	25.256	마음공부	11	3.24045	38.8855	영성	12	3.19867	38.3840
13	대학	8	3.157	25.256	유교	11	3.24045	35.6450	종교학	9	3.48635	34.8635
14	청소년	8	3.157	25.256	교육과정	11	3.24045	35.6450	불교교육	9	3.48635	31.3772
15	심성교육	7	3.29053	23.0337	동학	10	3.33577	33.3577	죽음교육	9	3.48635	31.3772
16	불교교육	7	3.29053	23.0337	대안교육	7	3.69244	29.5395	교양교육	8	3.60413	28.8331
17	교양교육	7	3.29053	23.0337	명상	8	3.55891	28.4713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	8	3.60413	28.8331
18	정보사회	6	3.44468	20.6680	육망	8	3.55891	28.4713	마음챙김	7	3.73767	26.1636
19	정체성	6	3.44468	20.6680	종교성	8	3.55891	28.4713	공공성	7	3.73767	26.1636
20	사회적기능	6	3.44468	20.6680	종교교과서	7	3.69244	25.8471	4차산업혁명	7	3.73767	26.1636
21	여성	6	3.44468	20.6680	Augustinus	7	3.69244	25.8471	마음공부	7	3.73767	26.1636
22	사회교육	6	3.44468	20.6680	선(禪)	7	3.69244	25.8471	유교	7	3.73767	26.1636
23	교육	5	3.62700	18.1350	생명	6	3.84659	23.0795	명상	7	3.73767	26.1636
24	훈습	5	3.62700	18.1350	종립학교	6	3.84659	23.0795	동학	6	3.89182	23.3509
25	해원	5	3.62700	18.1350	생명윤리	6	3.84659	23.0795	종교성	6	3.89182	23.3509
26	소태산	5	3.62700	18.1350	평화교육	6	3.84659	23.0795	대학생	6	3.89182	23.3509
27	불성	5	3.62700	18.1350	수행	6	3.84659	23.0795	기독교교육	6	3.89182	23.3509
28	다종교사회	5	3.62700	18.1350	해원	5	4.02891	20.1445	교과서	4	4.29728	21.4864
29	죽음	5	3.62700	18.1350	종교간대화	5	4.02891	20.1445	유아교육	5	4.07414	20.3707
30	인내천	5	3.62700	18.1350	청소년	5	4.02891	20.1445	핵심역량	5	4.07414	20.3707

중기(2005 - 2014년)에는 주요 키워드가 종교교육(89건), 불교(70건), 종교(36건), 개신교(30건), 가톨릭(28건), 원불교(23건), 불교교육(22건)이 나타났으며, 기타 키워드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영성, 교육, 유교, 마음공부, 교육과정, 동학, 종교성, 명상, 욕망, 종교교과서, 대안교육, 생명윤리, 생명, 종립학교, 평화교육 등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종교교육의 연구가 보다 다변화되고 학제 간 연구가 활발해졌다. 특히 ‘영성’, ‘마음공부’, ‘생명윤리’와 같은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종교교육이 단순한 교리 전달에서 벗어나 개인의 심리적 성장, 윤리적 성찰과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종교교육이 대학 및 공교육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흐름이 나타났으며, 종교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확장되었다.

후기(2015 - 2024년)에는 주요 키워드가 종교교육(78건), 불교(70건), 교육(43건), 개신교(32건), 가톨릭(26건), 원불교(19건), 대순진리회(12건) 등이 있으며, 기타 키워드로 인성교육(19건), 기타(16건), 교육과정, 영성, 종교학, 죽음교육, 마음공부, 제4차 산업혁명, 공공성, 명상 등이 키워드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이 시기에는 종교교육이 기술 및 사회 변화가 연결되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이 새로운 연구 주제로 부상하면서 종교교육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교실 기반 교육을 넘어 온라인 학습, AI(인공지능) 및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종교교육 방법론이 연구되었으며 이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학습 방식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되었다. 또한 ‘공공성’과 관련된 논의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종교교육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 윤리 및 다문화적 가치와의 접점을 찾으려는 흐름과 관련이 있다. 종교교육이 교육과정 및 정책 차원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인성교육 및 핵심 역량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증가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초기에는 전통적 종교교육과 교리 중심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중기에는 종교교육의 다변화와 학제 간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후기에는 종교교육과 현대 사회의 변화 [디지털 기술 발달, 공공성 강화 등]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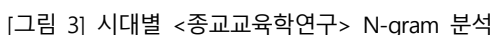
2) 초기, 중기, 후기 30년간 <종교교육학연구> 관련 연결성

1995년부터 2024년까지의 <종교교육학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N-gram 분석을 실시하여 시대별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종교교육 연구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초기(1995 - 2004년)에는 ‘여성 + 사회교육’, ‘청소년 + 심성교육’, ‘대학 + 교양교육’(6건), ‘불교 + 불교교육’(5건), ‘불교 + 한국불교’(4건), ‘종교교육 + 개신교’, 유교(4건) 등 연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기 연결성을 살펴보면 대상별 연구가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되었으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교육, 청소년의 심성교육 등이 중요한 연구 주제로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불교교육이 중요한 연구 축으로 연결되었으며, 개신교와 유교 관련 연

중기(2005 - 2014년)에는 ‘불교 + 불교교육’(19건), ‘종교교육 + 개신교’(6건), ‘불교 + 선(禪)’(6건), ‘종교교육 + 생명윤리’(5건), ‘종교교육 + 원불교’, 다문화사회(4건), 가톨릭, 한국, 교육과정, 대순진리회, Augustinus(3건) 등이 나타났는데 불교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종교교육의 다변화와 사회적 확장이다. ‘불교 + 불교교육’의 연결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불교 교육 내에서 수행 중심 교육, 명상 교육이 강조된 흐름과 관련이 있다. 또한 ‘불교 + 선(禪)’의 연결은 종교적 수행과 교육적 실천을 결합하려는 시도였음을 보여준다.

후기(2015 - 2024년)에는 ‘종교교육 + 대순진리회’(7건)와의 연결성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그리고 ‘종교학 + 교육과정’(6건), ‘종교교육 + 원불교’, 종교학(5건), ‘불교 + 마음챙김’(4건), ‘종교교육 + 교육과정’(4건), ‘증산 + 상생’(3건), 등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교교육 + 대순진리회’의 연결이 후기로 갈수록 증가한 것은 특정 종교[대순진리회]의 교육적 역할이 더욱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 종교교육의 흐름 속에서



- 14 -

<표 5> 시대별 <종교교육학연구> N-gram 분석

<Table 5> Era-based N-gram Analysis of *th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번호	1995 - 2004년			2005 - 2014년			2015 - 2024년		
	단어1	단어2	빈도	단어1	단어2	빈도	단어1	단어2	빈도
1	여성	사회교육	6	불교	불교교육	19	종교교육	대순진리회	7
2	청소년	심성교육	6	종교교육	개신교	6	종교학	교육과정	6
3	대학	교양교육	6	불교	선(禪)	6	종교교육	원불교	5
4	불교	불교교육	5	종교교육	생명윤리	5	종교교육	종교학	5
5	불교	한국불교	4	종교교육	원불교	4	불교	마음챙김	4
6	종교교육	개신교	4	가톨릭	Augustinus	4	종교교육	교육과정	4
7	종교교육	유교	4	불교	명상	4	증산	상생	3
8	종교교육	초등학교	3	종교교육	다문화사회	4	종교교육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3
9	동학	천도교	3	종교교육	가톨릭	3	종교교육	종교	3
10	유교	가정교육	3	종교교육	한국	3	교육	인성교육	3
11	종교교육	가톨릭	3	종교교육	교육과정	3	대순진리회	인성교육	2
12	가정교육	소학	2	종교	불교	3	마음챙김	명상	2
13	인간관	인격교육	2	종교교육	대순진리회	3	원불교	인성교육	2
14	민속종교	무교	2	개신교	영성	3	종교교육	개신교	2
15	원불교	청소년	2	종교교육	Augustinus	3	종교교육	인성교육	2
16	종교	정보사회	2	포스트모더니즘	영성	3	교육과정	핵심역량	2
17	불교	선종	2	지구화	지구윤리	2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2
18	종교교육	대순진리회	2	유교	유학교육	2	불교	불교종립대학	2
19	분석심리학	집단무의식	2	유교	불교	2	종교교육	뇌과학	2
20	불교	중국삼론종	2	종교	한국신종교	2	인성교육	마음공부	2
21	불교	훈습	2	종교교육	종교성	2	마음공부	심심풀이M3	2
22	유교	상례	2	민속종교	샤머니즘	2	불교	사명당유정	2
23	상례	장례	2	원불교	원불교교육	2	사은	감사교육	2
24	장례	죽음	2	종교	종교성	2	자아존중감	배려	2
25	종교	개신교	2	대순진리회	인간	2	유아	종교교육	2
26	개신교	불교	2	종교교육	홀리스틱교육	2	개신교	그리스도교양	2
27	종교교육	교육과정	2	가톨릭대학교	정체성	2	인성교육	프로그램	2
28	종교교육	동학	2	종교교육	불교	2	종교교육	교양교육	2
29	종교교육	불교	2	종교교육	종교과목	2	교양교육	인성교육	2
30	종교교육	원불교	2	종교교육	종교교사	2	종교학	교과서	2

새로운 종교 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교육적 정체성을 형성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종교학 + 교육과정’의 연결이 나타난 것은 종교교육이 보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불교 + 마음챙김’의 연결은 현대 교육에서 명상과 마음공부가 심리적 안정과 자기 성찰을 위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증산 + 상생’의 연결은 종교교육이 단순히 교리 전달을 넘어, 사회적 화합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교교육 + 교육과정’의 연결성 증가 또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후기 연구에서 종교교육은 점점 더 일반 교육과의 접점을 찾으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한국 교육 과정에서 종교교육이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초기에는 종교교육이 전통적 가치 교육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중기에는 다문화 및 윤리적 문제로 확장되었고, 후기에 들어서는 종교교육과 기술, 심리학, 사회적 공존 등의 이슈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점이 주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 <종교교육학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 종교교육학 연구의 동향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주제를 시기별(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키워드 빈도 분석(TF), 가중치 분석(TF-IDF), 그리고 키워드 간의 연결성을 파악하는 N-gram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교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종교교육, 교육과정, 영성, 인성교육 등의 키워드가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는 불교가 한국 종교교육학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종교교육이 단순한 교리 전달을 넘어 인성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시기별 연구 주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한국종교교육학회 창립 당시의 연구 방향과 시대적 요구가 연구 주제에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초기(1995 - 2004년) 연구는 불교, 유교, 동학 등 전통 종교교육과 가정교육, 심성교육을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었으며, 이는 종교교육이 기존의 전통적 가치와 연계된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기(2005 - 2014년)에 들어서면서 ‘생명윤리’, ‘영성’, ‘다문화사회’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여 종교교육이 사회적 문제 해결과 연결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후기(2015 - 2024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 ‘공공성’, ‘마음챙김’, ‘핵심역량’ 등의 키워드가 부상하며 종교교육이 디지털 사회에서의 역할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변화는 종교교육이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현대 사회의 요구와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을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N-gram 분석을 통해 특정 종교 간의 연구 연결성이 높아졌음이 확인되었다. 불교와 불

교교육이 가장 강한 연관성을 보였으며, ‘종교교육 + 개신교’, ‘종교교육 + 가톨릭’, ‘종교교육 + 원불교’ 등의 연결이 두드러졌다. 이는 종교교육 연구가 특정 종교에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포괄하고자 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후기 연구에서는 ‘종교교육 + 교육과정’, ‘불교 + 마음챙김’ 등의 연결이 나타나 종교교육이 보다 실천적이고, 심리적 웰빙과 연계된 연구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종교교육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른 학술지나 연구 자료를 포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의 특성상 문맥적 의미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학술지와 연구 자료를 포함하고,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텍스트 마이닝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종교교육 전문가 인터뷰나 사례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를 심층적으로 검증하고, 종교교육 현장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 등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의 토픽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LDA 기법을 활용하면 연구 주제별 주요 토픽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특정 연구 분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LDA 기법을 활용하여 각 시기별 연구 주제의 변화 양상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종교교육 정책 수립 및 교육과정 개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특정 종교 중심의 연구는 지금처럼 유지하되, 종교 간 비교 연구를 활성화하고 학제 간 연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종교교육과 기술의 융합을 모색해야 한다. 후기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종교교육과 디지털 기술[온라인 학습, AI, 가상현실 등]이 결합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종교교육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교육 방법론의 혁신이 요구된다. 셋째, 다문화 사회에서의 종교 간 이해와 공존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후기 연구에서 ‘공공성’, ‘다문화사회’ 등의 키워드가 강조된 것은 종교교육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종교 간 대화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종교교육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References

- Borgatti, S. P., Agneessens, F., Johnson, J. C., & Everett, M. G. (2024. 1. 14.). *Analyzing Social Networks*. SAGE Publications Ltd. Retrieved 2024. 1. 14., from <https://uk.sagepub.com/en-gb/eur/analyzing-social-networks/book281575>

- Feldman, R., & Sanger, J. (2007). *The Text Mining Handbook: Advanced Approaches in Analyzing Unstructured Dat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l, W. J., Shin, I. S., Kim, H. J., & Jang, H. Y. (2024).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Religious Education Using Text Mining: Focused on Buddhist and Christian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6, 1-16.
- Jung, H. J. (2005). The Trend and Task of the study for Religious Pedagogy - Centering around the Buddhist Education at home and abroad -.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1, 31-61.
- Lee, H. H., Jeon, B. R., & Won, H. J. (2024). Research Trends in Catholic Education through Semantic Network Analysi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6, 17-38.
- Lee, J. Y., & Chooi, J. G. (2023).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Catholic Education: Focusing on KCI Articles Published in Korea.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2, 31-39.
- Park, B. S. (2015). The New Vision of Religious Education in Buddhism.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8, 1-14.
- Park, J. H., Kim, E. Y., & Kim, Y. T. (2024). A Topic Modeling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on Korean Buddhism in Papers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2008-2022).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78, 125-153.
- Sohn, W. Y., & Kim, J. H. (2005). An Analytic Study of Korean Religious Education Research: Focused on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1, 63-89.